



우리나라 兒童圖書 出版

—現況과 展望—

李 璟 薰
出協事務局長

1. 餘言(어린이 讀書週間실시에 얽힌 이야기)

—將來를 생각하는 것은 귀중한 것이다.— 이 청탁 題目은 지난 5월 초하루부터 이례날까지 1주간 실시되었던 제3회 어린이 讀書週間을 계기로 우리나라 어린이의 입을 거리를 살피 보려는 편집자의 意圖를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우리가 四季中 讀書는 서늘한 가을에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讀書週間을 가을(9月中 마지막 한 週間)에만 실시했는데 美國 등 先進外國에서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어린이 讀書週間을 우리도 導入한 것이다. 즉 우리는 어린이 讀書週間을 韓國圖書館協會, 財團法人 어린이會館, 大韓出版文化協會의 三團體가 共同으로 1976年 5月 1日을 기하여 宣布하였다. 이때 『어린이 讀書憲章』도 채택했었다. 이와 같은 舉事는 말할 것도 없이 나라의 將來를 위한 생각이었다. 그리고 이들 세 團體는 어린이 讀書運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界已 그 團體의 專門의 職能에 따라 業務도 分擔한다는 뜻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다 무엇이다 強調하는 週間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구체적 事業을 着手하지 않으면 이 週間의 참된 뜻이 減退될 것은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어린이를 위하여 훌륭한 出版을 하고 또한 親切하고 適切한 讀書指導와 環境造成 그리고 根本的인 兒童文學의 진흥을 위한 事業을 시작하고 또한 단계적인 對策이 마련되며 아울러 모든 사람의 理解를 깊이하는 운동, 즉 特定團體의 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出版社, 書店, 圖書館, 學校, 新聞社 등 各種 文化團體가 講演會, 展覽會, 讀書發表會 등이 週間에 알맞은 文化行事를 다투어 벌리는 週間이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인가 한다.

다음은 주어진 題目에 따라 兒童圖書出版의 現況을 설명하기 위하여 出版種數의 成長 추이와 그것의 分野

別 形態別 各種 統計를 出協의 納本統計에 의하여 提示하고 展望에 대해 言及하기로 한다.

2. 現 況

(1) 兒童圖書出版의 成長 趨勢

우리나라의 兒童圖書의 出版統計를 편의상 三區分한다. 一期는 48年度부터 60年度까지인데 이 一期의 平均發行種數는 約 99種을 나타냈고 二期는 61年度부터 70年度까지인데 이 期間의 그것은 約 259種을 나타내면 71年度부터 昨年 77年度까지의 三期의 그것은 무려 1,033種으로 急成長하고 있다. 特記할 것은 三期中에서도 77年度의 發行種數는 2,151種으로서 同期間의 平均値의 2倍의 急騰을 나타냈다. 이것을 整理하면 다음 表와 같다.

兒童圖書種數發行 趨勢表

| 區 分 | 種 數 平均値 | 備 考 |
|---------------------|------------|--------------------------------------|
| 1期(1948年~ 1950年) | 99種 | 60年度 以前은 各年度別 統計가 없음을 補기함. |
| 2期(1961年~ 1970年) | 259種 | 이期の 10年은 어느 해나 200點 內外로서 振幅이 크지 않았음. |
| 3期(1971年~ 1977年) | 1,033種 | 75年度부터 1千種이 넘었으며 77年度는 2,151種으로 急増함. |

(2) 兒童圖書의 形態別 分野別 統計

77年度 統計를 가지고 우리나라 아동도서 形態別, 分野別로 分析한 통계는 다음과 같다.

◎ 單行本

오리지널 107種
번역물 79種

◎ 全集物

오리지널 939種
번역물 1,026種
計 2,151種

이에서 우리는 單行本 형태의 아동도서가 全集物에 비하여 10분의 1도 못되게 過少한 현상을 알수가 있다. 또 單行本에 있어서는 번역물보다 오리지널 쪽이, 全集物에 있어서는 거꾸로 오리지널보다 번역물 쪽이 若干씩 많다는 것이다.

3,4年前만 해도 單行本의 過少現象으로 인하여 讀者로부터 出協에 抗議를 보내는 경우가 間간이 있었다. 무엇때문에 꼭 단번에 그 여러권의 全集을 사야만 하게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다. 그후 出版界는 全集物도 달려오므로 파는 좋은 前例가 잇따라 나오고 있어 어린이 도서 出版이 改善되었다.

◎ 77年度 兒童圖書 分野別 統計

| | | | |
|-------------------|----|--------|-----|
| 그림책 | 初版 | 182 | 310 |
| | 重版 | 128 | |
| 宗教·教育 | 初版 | 45 | 69 |
| | 重版 | 24 | |
| 科學·學習 | 初版 | 68 | 175 |
| | 重版 | 107 | |
| 韓國童話·詩 (傳來·創作) | 初版 | 109 | 231 |
| | 重版 | 122 | |
| 世界童話·詩 | 初版 | 408 | 981 |
| | 重版 | 573 | |
| 歷史 | 初版 | 32 | 80 |
| | 重版 | 48 | |
| 偉人傳記 | 初版 | 130 | 305 |
| | 重版 | 175 | |
| 計 | | 2,151種 | |

이 統計 分類에서 보는바와 같이 어린이 文學에 있어서는 世界童話·童詩의 번역물이 韓國童話·童詩에 비하여 約 4倍以上이나 더 많이 出版되고 있다.

우리는 이 點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해방후 30여년간 우리는 아동文學에 대하여 얼마나 安易하게 그리고 이 分野에 대하여 소홀히 생각하고 있었다는 點에 反省을 해야 한다.

그러나 통계상으로는 아동도서 出版은 30여년이란 歲月에 많이 발전되고 변모된 것이다. 이나마 多樣性을 나타냈다는 것은 어린이의 成長을 위하여 얼마나 多幸한 일인가 생각하게도 되지만 어린이를 위한다는 데에 어디 限界가 있고 끝이 있겠는가.

3. 展 望

아동도서 出版은 폐지일언하고 더욱 專門化되고 이에 從事하는 兒童文學家 편집자, 出版人 教育者 아동화가 등 모든 分野의 共同努力이 더욱 切實한 것이다.

지난 4月 유네스코韓國委員會가 주관하여 아시아地域 10개국 代表가 서울에 모여서 아동도서 출판에 관

한 워크샵을 가진 것도 이런 뜻이었다. 우리는 이와같은 努力이 계속되는 限 우리나라 아동도서 出版의 展望은 밝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이에 대하여 필자의 所見을 적기로 한다.

1. 必然的으로 國內創作物과 單行本의 增加를 가져올 것이다.

世界속에 韓國을 浮上시키는 일은 우리의 正當한 發動이다. 이르기 위해서는 文化面에서 特別히 主體意識이 強調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을 키우기 위하여 出版하는 도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한 것이다. 이웃 日本의 例를 보면 年間 刊行되는 어린이 도서中에서 約 70%가 國內 創作物로서 日本兒童文學界의 창작 活動은 우리의 比較하여 매우 活潑한 것이다. 이와같은 自主意識을 出版文化에 扶植하는 自覺이 우리 兒童文學界와 出版界에 發動이 걸리고 있다.

아울러 豪華裝幀의 단순한 모방적 時代를 脫皮하려는 發展의인 움직임으로 因하여 한 時期는 이들 호화장정을 반드시 한 셋트에 넣어서 大型의 帙物로 하여야만 兒童圖書가 尊及되어 오던 風潮가 徐夕히 退潮되고 있음을 感知할 수 있다.

2. 插畫가 많아지고 多色度化한다.

어린이에게는 우선 재미있는 도서를 供給하여야 한다. 문장 표현이 재미있고 그림이 재미있고 또 製作面에서 堅固하고 美麗하다는 것이 그 基本이다. 筆者는 한 5年前에 日本의 福音館社長 松井氏(이 사람은 福音館이란 兒童圖書의 專門出版社를 경영하면서 아동文學과 心理學을 專攻하는 學徒이다. 著書와 研究論文을 자주 發表한다)의 訪問을 받은 적이 있다. 그의 訪韓目的은 自己가 韓國의 童話책을 日本語로 出版하고 싶은데 이 童話책의 插畫그림을 그릴 사람을 物色中인데 韓國의 畫家의 취양으로는 千鏡子씨가 過任이라고 생각되어 이 千씨를 相逢토록 추진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는 適當한 插畫, 어린이 책에 알맞은 그림을 求得하기 위하여 이 나라 저 나라를 직접 찾아다니는 것이다. 筆者는 이러한 編輯態度 乃至는 出版人의 態度에 만강의 감사를 보았던 것이다.

現在의 우리나라의 어린이 책은 一般的으로 너무나 그림삽화가 적다는 것이 輒단으로 指摘되고 있다. 얼마전에 유네스코 아시아 出版센터가 삽화가 많이 있는 兒童圖書의 아시아地域目錄을 책으로 내는 일로 韓國에서 50種의 圖書를 선정하는 作業이 있었는데 그 기준을 外國 그림을 모방한 것 삽화가 있더라도 畫家 이름이 없는 것 잔인한 그림 등을 제외하고 뽑아보았더니 선정업무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 作業을 통하여 어린이 畫家의 出版의 參與가 이와 같이 인식했던가하고 고개를 설레 설레했던 것이다.

또한 어린이에게 豐盛한 情緒를 안겨주기 위해서는 그림에서도 多色處理를 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지금 보다는 功을 많이 드려야할 것을 생각해야 한다. 序頭에 말한 것처럼 “將來를 생각하는 것처럼 貴重한 것은 없다”는 바람직한 생각이 이 出版界에서 발동되고 있다. 低質의 만화책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값이 월등히 高價가 되는 限이 있더라도 文化에 기여할 수 있는 靚다운 어린이 책이 나와야 한다고 바라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도서가 값싸야 한다는 固定觀念을 버릴 때라고 생각한다.

3. 兒童圖書出版의 專門化' 協同化'로 市場擴大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나라의 아동도서 出版界를 잠시 살펴 보면 최근 約 10年 前後해서 專門化, 協同化의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동안의 출판의 패턴이 全集物 할부판매가 主流를 이루었던 特異한 양상을 들 수 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한권 한권 팔리는 소위 單行本 出版은 아직까지 극히 不振했던 것이다. 우리는 이와같은 一連의 兒童圖書 出版에 대하여 反省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무분별한 全集物 경합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아동도서 편집자의 獨창적 專門性이 요구되는 것이다.

大韓出版文化協會는 이러한 우리나라 아동도서 出版의 不合理한 現實의 改善策을 찾기 위하여 再昨年부터 每年 아동도서 出版과 관련된 課題를 놓고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가 계속 事業으로 전개될 때 앞으로 우리나라 兒童圖書 出版을 개선하고 그 質을 向上시키는 데 또 一般에게 兒童圖書 出版을 이해시키는 데 限量 없는 成果를 올릴 것을 나는 確信하는 것이다.

이 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昨年度 세미나에서 發表되었던 兒童文學家 劉煥庚씨의 「兒童圖書出版論」과 兒童心理學者 徐鳳延教授의 「兒童圖書出版의 理想」의 要旨를 정리 紹介기로 한다.

——「兒童圖書出版論」의 發題要旨——

① 企劃面에서

「아동도서는 싸야한다」는 고정관념에 집착되어 있는데 이것은 西歐사람에게 보기 드문 현상이다. 또 先進國에서는 어느 골목에서나 아동도서를 살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선 골목길의 책방에서는 아동도서는 별로 없고 鐘로 등 변화가 큰 書店에 일부러 나가야만 볼 수 있다.

또 出版人이 아동도서 出版을 가장 安全한 投資로 생각치 않고 있다는에서 제작비를 들일만큼 들인 兒童圖書라야, 그것이 아동도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의식구조를 바꾸어야만 한다.

지능정서 제발로서의 아동도서 出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뒤떨어진 부분이다. 이 分野의 出版企劃이야말로 企劃擔當者가 외부의 자극을 받아서 企劃할 性格의 것이지만, 아직 그만큼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

知能開發에 있어선 教育學 心理學分野의 인접과학과 연결된 行動科學의 副教材나 初等教育 내지는 育兒教育의 分野의 보충교재로서 활발한 出版이 기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科學的으로 뒷받침할 연구기관으로서 公信力을 얻고 있는 기관이 얼마나 되느냐가 問題인 것이다.

② 編輯面에서

편집인이 우수한 편집기술을 발휘하려면 적어도 아동도서에 있어선 兒童畫 專門의 畫家를 확보하는 것이 急先務이고 둘째로 좁은 뜻의 편집기술을 위해 應用美術學科 出身의 편집원을 확보하는 것이 1次業務라는 것이다.

製作費節約은 참신한 編輯으로서 발행부수의 증가를 도모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이다.

——「兒童圖書出版의 理想」의 發題要旨——

① 아동도서는 무엇보다도 아동의 발달적 특징에 부응해야 한다.

② 아동의 지적호기심에 알맞는 도서라야 한다. 예를 들면 3세에서 4,5세에 이르는 시기는 흔히 「質門期」라고 불리우는 시기로서 이와같은 시기에 아동의 지적 발달을 효과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③ 국민학교 어린이를 발달심리학적으로 볼 때 「知識時代」란 별명이 있는 것처럼 知的探究心이 고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는 知的探索을 자극하는 책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책이 아동들의 구미에 맞는다.

④ 좋은 아동도서를 출판하자면, 아동도서 出版社나 兒童文學家나 아동心理學家나 간에 혼자 힘으로서는 도저히 不可能하다. 各年齡 단계 아동들의 心理的 特性을 잘 알아야하며 또 그에 맞는 도서를 내는데는 또한 글을 쓸 줄 아는 아동문학가의 힘을 빌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圖書가 과연 어떠한 教育적 效果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은 教育자의 參與없이 는 또한 不充分하다.

그러므로 兒童들에게 적합하고 유익한 兒童圖書의 出版을 위해서는 관계 分野專門家들의 協議會나 研究機關의 設立이 必要하다. 예를 들면 어린이의 讀書興味調査라던지 아동도서의 內容 分析이라던지 讀書效果의 비교 분석과 같은 아동도서 출판을 뒷받침 해주어야 한다.

⑤ 兒童圖書의 出版은 民族의 앞날에 投資하는 것인 만큼, 어린이 讀書週間과 같은 行事를 맞이해서 年中

行事の 하나로 처리되고 그칠 것이 아니라 青少年指導對策의 일환으로서 長期的 對策이 수립되어야 한다.

4. 結 論

① 圖書開發委員會 등의 必要性

아동도서 統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도서의 종수가 75年을 고비로 1千點(1,069點)을 돌파하고 昨 77年에는 그의 2倍인 2千點(2,151點)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量的 팽창에 그칠 것이 아니라 內容과 製作 等 質에 있어서의 向上과 發展이 切實히 促求되는 것이다. 이것이 關係 專門人들 즉, 教育家 兒童文學家, 圖書館人, 出版人 등의 共通된 바람인 것이다.

지난 4月 筆者는 維政會 政策研究室소속 國會議員의 부름을 받고 자리를 함께 한 적이 있었다. 이 자리는 健全 문화 育成方案을 모색하기 위하여 出版界의 의견을 듣겠다는 모임이었다.

이자리에서 李範俊議員은 在美時節의 生活을 소개하면서 美國의 어머니는 自己의 어린이를 위하여 밤마다 그림책을 읽어 주고 있었다면서 우리나라 어머니에게도 이런 교육적 활동이 바람직한데 어찌하여 우리는 그와 같이 훌륭한 그림책이 없고, 低質 單화책이 범람한다고 우리의 曲境을 털어 놓았다.

國會議員이 이런 어린이 圖書出版에 대한 文化의 根本問題에 焦點을 돌리고 있었다는 事實은 中間 圖書出版의 고질적 弊를 우선 脫皮하는데 매우 무적인 힘이 된다.

前記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是正하여야 할 일을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추진하고 연구하고 協議할 行政的 啓導 기관이 없다. 우리는 이러한 協議體 발족이 必要하다.

유네스코가 권장한 國家圖書開發委員會도 좋다(出協의 建議). 또 77年 78年 兩年度 어린이 讀書週間에 즈음한 세미나에서 제기된 研究機關과 常設 圖書選定委員會의 設立이 早速히 발족되어야 할 것이다.

② 兒童文學의 젊은 地球가 태동되어야 한다.

우리 周圍에서 늘 兒童文學은 市場이 없다. 원고료가 적다. 원고를 消化할 매체가 없다. 이런 푸념만이 많이 들려왔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만큼 진지하게 兒童文學을 생각하였는가. 日本의 한 詩人은 童話에 대하여

「童話, 아동을 讀書對象으로하는 文學은 人間肯定, 人生肯定이라 할 수 있는 人間主義를 根底로하지 않으면 成立되지 않는다.」

이제 筆者는 編輯者의 立場에서 이 말의 뜻을 재음미하고 우리나라의 兒童文學도 젊은 地球가 태동되어야 한다고 確信하는 것이다.

太陽과 녹색의 푸른 大地가 어린이 身體의 成長에 必要한 것과 같이 보다 좋은 兒童文學, 兒童文化는 어린이의 마음에 成長에는 不可缺의 것이다.

모름지기 어린이에는 兒童文學의 새로운 地帶를 確保하고 供與할 既成人의 使命이 있는 것이다.

● 78年度 會費를 조속히 納付하여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會員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協助과 聲援에 대하여 深甚한 感謝를 드립니다.

協會는 會員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後援과 積極的인 參與로써 꾸준히 發展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自立財政의 確保라는 基本的인 問題가 아직껏 解決되지 않은 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보다 能動的이고 활발한 事業의 展開과 會員을 위한 權益擁護의 礎를 積極 마련치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實情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協會의 어려움에 대하여서는 너나 할것 없이 會員 모두가 몹시 걱정해 오고 있으며 그 打開策에 대하여 論議되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根本對策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問題와 關聯하여 現在 協會의 唯一한 財源으로 되어 있는 會員負擔金인 會費를 引上하는 問題가 77年 定期總會席上에서 具體的으로 舉論되어 78年度부터 引上키로 決議되었습니다.

協會가 제 機能을 發揮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于先 最少의 財政自立만이라도 確保되어야 하겠습니까. 團體會員이나 個人會員 여러분들께서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協會의 財政事情을 깊이 理解하시어 會費를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 | | |
|--------|-----|---|---------|
| 團體會費 : | A 급 | 年 | 70,000원 |
| | B 급 | | 50,000원 |
| | C 급 | | 35,000원 |
| | D 급 | | 10,000원 |
| | E 급 | | 5,000원 |

個人會費 : 年 2,000원